



buddhanews.com

‘희망’ 등 밝히는 2010 불교계 가장나눔

2010년 경인년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가장나눔으로 ‘희망’을 밝힌 지난해는 △ 조계종 총무원장 단일후보 선출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불교 서적 및 전문 복합점 건립 등이 현실화 됐다.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꿈’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새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불심을 모아보자

“ 불자여 비전을 향해 뛰어라 ”

봄은 한국 불교에 심취해 미국에 한국사찰을 봉사하고 외국인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을 만들어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말 출범된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파라미터청소년협회 · 좋은벗경정소리 · 동련



지난해 5월 국내 최대의 지역사회복지시설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분당, 평촌, 일산, 판교, 송도, 풍산 등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지역사회복지시설모두를 수탁 받는 쾌거를 이뤘다.

수보다 약 4배가 넘는 희망자를 받음으로써 가장 많은 등록자 수를 보유하고 있던 대한적십자사를 제치고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최다 보유 기관’이 됐다. 이은정 기자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마련... G20 정상 불교문화 극찬

조계종은 2010년 6월 승려연금 및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승려노후복지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노령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를 위한 재단이 설립됐으며, 각 교구본사 별 1개 이상의 승려복지 주거시설이 마련됐다.

승려노후복지 해결을 계기로 개인재산 축적 등 각종 비위문제는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 GB리서치가 지난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종교의 신뢰도 조사’에서 불교는 신뢰도 5점 만점에 응답자 평균 4.8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국민 신뢰회복과 함께 불교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놀라게 한 자리도 마련됐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는 각종 테마별 선(禪) 프로그램과 태교종 축이 준비된 영산재 등 불교문화 공연, 사찰음식 향연 등이 선보였다. CNN, BBC 등 해외유수 언론의 생중계 하에 목동 국제선센터를 찾은 세계 각국 수반들은 불교전통과 한국의 정신문화를 체험하고 극찬을 보냈다. 노덕현 기자

#MB 드디어 삽 내려놔...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편법사업이라는 명예와 국민의 우려 속에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4대강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국토해양부는 턱없이 불어나는 사업비와 공사 중 지반이 무너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공사가 진행된 세 곳의 보안 마무리 작업을 한 뒤 공사는 철수됐다.

4대강사업에 반대시위를 벌여온 환경시민단체들은 “국가재정병 시행령의 위헌소지가 있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애당초부터 억지였다”며 “어쨌든 공사 초기단계에 중단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단체는 “생명을 두고 살리는 일은 의도적이기 보다 저절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리고, 4대강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박선주 기자

#제2회 포교결집대회에 5만 명 동참

2010년 한해는 불교계 신도들의 놀라운 결집력이 눈 부시는 한해였다. 조계종 포교원은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 5만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포교결집대회를 개최했다. 포교결집대회에서는 대중 수행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불자상거래연합회를 통한 물류 거래 통로를 확보, 불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템플스테이는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불자4대 천왕인 장동건, 이병헌, 김민중, 임태웅은 33관음성지 홍보대사로 위촉돼 올 한해 10만 일본인 관광객 방문을 달성시켰다. 그밖에도 헐리웃 불자 스타 올랜도 블



· 불교레크리에이션 등을 주축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신개념 인재를 발 발전소 ‘썩크랭크 부타’를 개소했다. 발전소는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 만들기 프로그램과 함께 학업과 미래발전에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과정으로 전국 시도 모범운영 아카데미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불교여성개발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상담개발원 등에서는 사찰음식·성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인 양성에 나섰다. 중앙신도회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의 교류를 통한 통일 의 물꼬를 트고, 반갑다연우회는 2만 명 무료진료 달성,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의 본격적 열불봉사, 관촌상제 서비스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상연 기자

#사회복지도 불교가 으뜸... 복지관 수탁 잇달아



이번 수탁을 계기로 복지재단은 이웃종교 복지법인 등을 비롯한 경쟁단체를 제치고 시설운영권을 얻음으로써 신도시 지역에 대한 복지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이웃종교에서는 불교계의 복지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재단 산하시설과 사무실을 찾는 일이 빈번했다.

자승 스님은 “종교계 중에서는 불교복지가 가장 늦었지만 동체대비, 자리아타 정신에 입각해 종단의 대사회 복지활동을 더욱 강화한 결과 연이은 수탁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기관 중 하나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은 올 한해에만 10만 명의 기증희망등록자를 받았다. 2004년 시작할 당시 2500명이었던 등록자를 2009년에 1만 7000명으로 끌어올린 생명나눔은 현재 등록자

#동국대, 대학순위평가 수위권 진입

조계종립 동국대(이사장 정련)의 대학평가가 수위권에 진입해 건학 104주년에 걸 맞는 명문사학의 명성을 되찾았다. 00일보 ‘2010년 대학평가’(2010년 9월 발표)에 따르면, 동국대는 지난해 27위에서 5위권 내에 드는 쾌거를 이뤘다.

동국대의 약진에는 학생·교수·직원 등 구성원간의 화합을 이끈 이사장 정련 스님의 리더십이 가장 주요했다는 평가다. 스님은 지난해 대학본부 측의 일방적인 새 연구업적평가제 도입에 교수-대학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파격적인 연구지원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구성원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장학혜택을 재학생 모두로 확대하고, 재단전입금을 유예했던 금액으로 늘리는 등 재단이 앞장서 학교 발전의 모범을 보였다.

동국대 재단 관계자는 “이번 대학평가가 안주하지 않고 화합·상생을 화두로 지속적인 학교발전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국대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되도록 재단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성 기자

#10만 부 이상 베스트셀러 불서 10권 출현

법정 스님의 예세이ыл 제의하면 10만 부 이상 판매된 불서가 드문 불교계에서 2010년에는 1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무려 10권이 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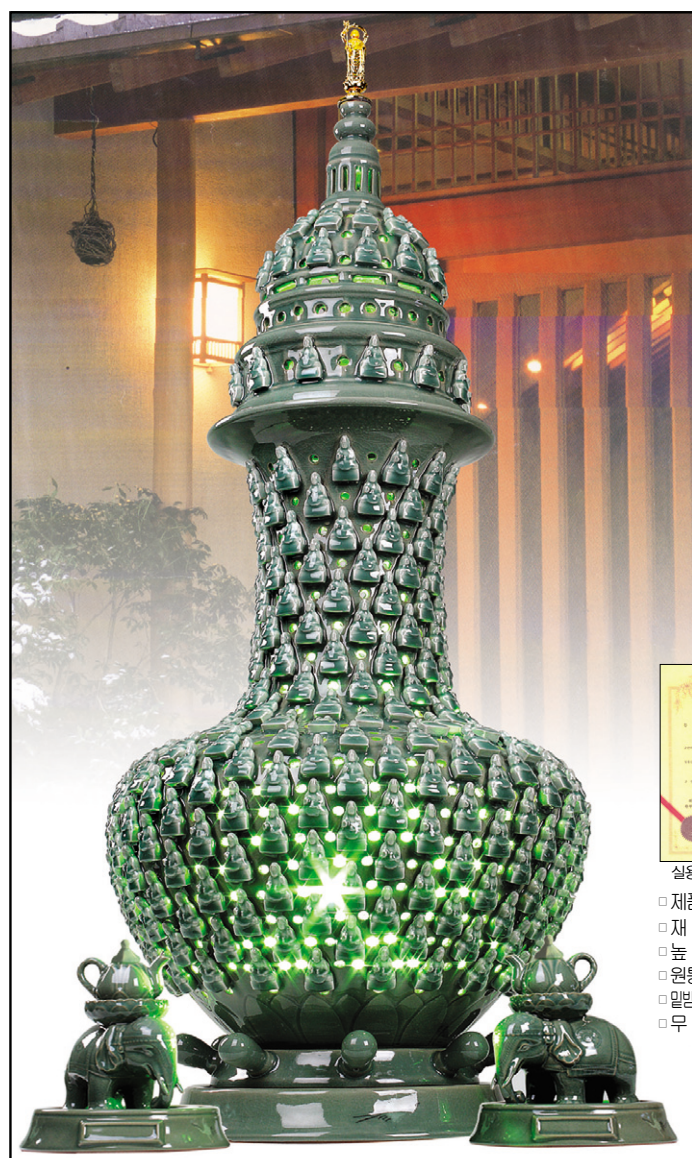
그동안 필자나 마케팅 및 영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어렵히는 베스트셀러가 없었던 불교출판계가 불광출판사, 조계종출판사, 동국대출판부 등 불교출판계 ‘빅3’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기획과 영업 전략으로 큰 성과를 내게 된 것이다.

2009년, 평년의 2배 이상 불서를 발행한 여세를 몰아, 불교 전문출판사들과 일반출판사들은 2010년에는 양질의 불서를 쏟아내 불서를 통한 포교에 큰 기여를 했다. 게다가 2010년에는 ‘불교’라는 콘텐트를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여긴 일반출판사들이 2009년에 비해 또다시 두 배 이상의 많은 불서들을 발행해 ‘불교출판의 중흥’이란 말을 회자되게 했다. 김성우 기자

#사찰음식, 선풍적 인기로 대중 입맛 사로잡아

스님들의 수행사인 사찰음식이 일반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일반 음식점에서도 활기를 띄고 있다. 작년에 열린 사찰음식 대항연이 외국인들과 국내인사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2010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소개돼 대중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사찰음식이 대중음식문화 속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현대인들이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았던 템플스테이에서 자연스레 불교를 접하고 사찰음식의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 많은 홍보역할을 했다. 또한 스님이 아닌 일반 요리사들이 직접 사찰음식을 체험해보고 만든 음식들이 불로거, 책 등으로 소개돼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찰음식을 접할 수 있어 사찰음식대중화에 한몫을 했다. 현재 사찰음식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형 휴게소와 마트 등에는 사찰음식들이 상품화 돼 판매되고 있다.

한편 불교의 문화를 알리는 면은 좋으나, 스님들의 수행이 너무 상품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은정 기자



업장소멸 범륜대 (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범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범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사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범륜대에 복사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빛,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 범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장차 범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범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범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1-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전불봉안범륜대
○ 재질: 대한민국 상감장차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범륜대 예약 대축제

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